

▶ 의생활

청바지의 착용감 개선을 위한 착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 지 영 (동명대학교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이 나 경 · 석새미 · 이미현 · 최현정 (동명대학교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 학생)

과거에는 청바지가 작업복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성별, 연령, 계절, 직업 및 착용상황등과 관계없이 청바지가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자아실현에 대한 가치를 표현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청바지 스타일은 부츠컷, 로라이즈, 스키니진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특히 스키니진은 이전에 활용성을 내세우던 다른 디자인과는 달리 체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아무나 쉽게 도전할 수 없는 디자인이다. 본 연구는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과 체형별로 청바지의 구매,수선 및 착용실태를 조사하고, 특히 최근 유행하는 타이트 청바지의 착용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하고 착용 불만족에 따른 문제점과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인의 문화와 체형에 적합한 청바지의 생산, 설계 및 유통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청바지 구매실태 조사결과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구매자 및 구매가격, 타이트 청바지 구매경험, 제품치수인지에 관련된 문항으로 청바지 구매자는 10대 후반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구입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 동료와 구입하기보다 본인이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트 청바지 구매경험은 연령이 낮을수록 구매경험이 없었다. 자신의 신체치수로 청바지를 구입할 때 매우 살찐형과 보통형은 신체치수에 맞게 청바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살찐형은 자신의 신체치수보다 더 큰 치수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에 따른 청바지 착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살찐 체형 일수록 청바지 입는 횟수가 높았고 마른체형 일수록 착용횟수가 낮았다. 이 결과 신체에 자신이 없고 똥똥할수록 자신의 결점을 커버할 수 있고 활동성이 좋은 청바지를 자주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이트 청바지에 대한 소비자 실태를 조사결과에서 청바지가 점점 타이트해지는 것에 대해서 모든 연령대가 인식하고 있었으나 타이트 청바지가 자기 자신의 체형에 잘 맞지 않고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유행생각을 많이 하는 10대 후반과 20대 초중반에서 1~2벌 정도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바지는 여가시간의 증가와 함께 전 연령대에서 선호하는 의복 아이템이므로 소비자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행에 따른 청바지의 미적인 요소와 더불어 활동성과 편안함을 중요시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